

2-35. 솔알락명나방(*Dioryctria abietella* D.)의 밀도조사 및 인공사료를 이용한 생활사 조사

강승호, 이형근, 권영대

경기도 산림환경연구소

현재 잣나무임지에 잣송이를 가해하는 구과해충인 솔알락명나방이 대발생하여 잣생산에 막대한 손실을 주고있다. 국내에서는 1996년도에 경기도 가평에서 잣구과의 숙기별에 따라 구과내 가해유충을 조사한 결과, 2년생구과가 생장을 시작하는 5월의 피해율이 83.3%에 달하고 주요해충으로는 솔알락명나방이 구과당 평균 3개체로 가장심한 피해를 주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본 조사는 항공방제지역으로 선정된 가평군, 포천군 4개지역에서 40개의 잣구과를 채취하여 솔알락명나방의 유충밀도 조사를 하였는데 가평군 점패에는 잣구과당 평균유충수가 4.31개체로 가장 높았으며, 가평군 행현리에서는 평균 1.06개체가 낮은 밀도를 보였다.

포천군 삼정리는 잣구과당 유충 1~2령은 0.8개체, 3~4령은 0.53개체, 5령은 0.14개체로 평균 1.48개체로 조사되었다.

가평군 점패와 회곡리에서는 1~2령유충이 평균 11~13개체로 잣구과당 높은 밀도를 보였다. 가평군 점패와 위곡리에서는 번데기 0.12, 0.48개체로 조사되었다.

솔알락명나방의 생활사를 조사하기 인공사료를 개발하여 사육한 결과, 난기간은 3.6 ± 0.6 일이며, 유충기간은 평균 20.4 ± 0.2 일로 5령의 발육기간으로 조사되었으며, 용기간은 평균 8.4 ± 0.8 일, 성충수명은 9.1 ± 0.5 일로 조사되어 한세대는 41.5 ± 0.1 일로 조사되었다.